

古代 韓國 · 中國 建築關係史 研究 (I)*

— 百濟를 對象으로 —

李王基

(목원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1. 序論

백제의 건축양식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백제의 건축유구가 가장 중요하고 명확한 자료이나 불행하게도 남아있는 자료는 매우 희박하다.

다행히 비교될 수 있는 지역이 당시 중국과 일본의 역사적 사료라 하겠다. 그러나 두 지역의 건축양식적 자료는 백제건축을 명확히 구명해 줄 정도는 아니다. 다만 이 지역의 건축양식적 자료가 백제건축에 대한 자료로는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다.

한반도에서의 건축문화가 대륙의 영향을 받아 양식이 형성되었다 해도 그양식이 어떠한 형태인지 명확치 않다. 애석하게도 우리에게 남겨진 건축양식적 유물은 거의 없다. 따라서 百濟의 건축양식에 대한 복원적 연구는 당시 교류가 가장 빈번했던 중국대륙과의 교류관계를 살펴 봄으로서 그 실마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백제건축을 연구하기 위한 근원적 고찰로서 백제와 중국간 건축교류의 초기적 상황

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는 2편으로 구분되는데, (1)편에서는 문헌적 고찰과 고고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하며, (2)편에서는 현존하는 동일시대의 유적, 유물을 중심으로 상호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2. 百濟와 中國의 交流接近

한반도에 百濟가 존재했던 시기는 B. C. 18년부터 A. D. 663년까지 681년 간이다.

중국대륙에서는 後漢이 시작하는 시대로 부터 後漢이 끝나고 三國, 西晉, 東晉, 十六國時代를 지나 南北朝時代의 明滅을 거쳐 唐이 발흥하여 위세를 떨치던 초기에 해당된다. (표 1.)

지리적으로 百濟는 京畿, 忠淸, 全羅道 등 한반도 서남부에 자리잡고 있어서 일찍부터 한강, 금강, 영산강등 큰하천을 연결하는 연안내륙의 교통로 뿐만 아니라 중국대륙과 일본열도를 연결하는 해상교통로가 개설되어 있을 정도로 해상활동이 하기에는 더할나위 없는 호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 이 연구는 1991년도 학술진흥재단 지방대학육성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결과의 일부임.

표 1. 百濟와 中國의 時代變遷 比較

百濟	原三國	漢城時代 B. C. 17 A. D. 475			熊津時代 475~538	泗比時代 538~663		
		漢江유역 漢山城을 중심으로 활동			公州중심	夫餘지역 중심		
中國	後漢 B. C. 206- A. D. 8	三國時代		十六國	南北朝		隋 581- 618	唐 618- 907
		魏 220-265	西晉 265- 316	東晉 317-420	南朝	宋		
		蜀 221-263				齊		
		吳 222-280		十六國 304-439		北朝		
		陳						
		東魏						
				西魏				
					北齊			
					北周			

이러한 지리적 조건 이외에 百濟가 해외로 진출하게 된 보다 적극적인 이유를 무엇보다도 정치적 입장, 즉 三國간의 치열한 항쟁에서 찾을 수 있다. 4세기 후반이후 三國은 중국의 분열기인 南北朝時代를 맞아 치열한 정복전쟁을 벌여 한반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였다. 또한 활발한 대중교섭으로 상호 세력균형과 견제의 의미를 가진 외교적 역지력을 심분 이용하면서 자존의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¹⁾ 특히 고구려가 A. D. 427년 환도성에서 남하하여 평양으로 도성을 옮기면서 백제국경에 대한 위협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그림 1.)

이러한 정치적 상황은 백제로 하여금 북조의 北魏와 대립관계에 있던 남조의 宋과 더욱 친밀히 교류를 갖게하는 요인이 되었고 나아가 북위로 하여금 고구려의 군사력을 통제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라 하겠다.²⁾

한편 百濟가 중국과 교류를 통하는 데는 크게 두가지 길을 모색하고 있다. 즉 하나는 고구려땅을 지나는 육로이고 다른 하나는 황해를 통한 해로이다. 해로를 통한 교류는 최소한 3가지 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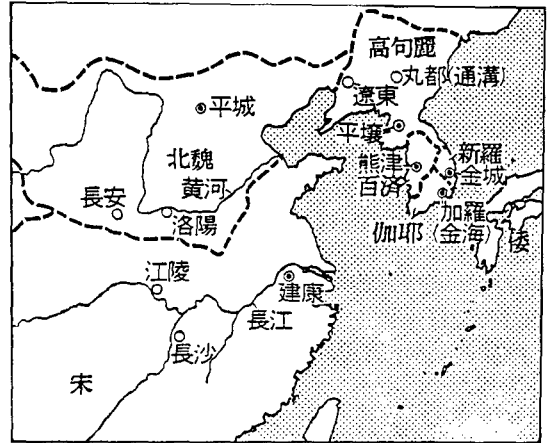


그림 1. 5세기경 동아시아 국제형세 (자료, 考古 89-11期)

를 생각해 볼수 있다. 하나는 서남 해로로서 東쪽에서 한반도 서부에서 양자강 하류에 이르는 해로이고, 두번째는 서북 해로로서 한반도 서해안에서 서북쪽으로 거슬러 올라 산동반도에 이르는 뱃길이다. 이길은 특히 당나라 군사가 百濟를 치기위하여 이용한 해로이다. 세번째는 동남해로인데 이길은 한반도 남부와 일본섬을 잇는 해로로서 반도와 섬을 거쳐 중국의 남방지역으로 연결되는 길이다.³⁾ (그림 2.) 세번째 해로는 서해안을 남하

1) 梁起錫, 「百濟의 海外進出」, 『季刊京郷 87여름호』 (京郷新聞社) PP. 78-79

2) 王仲殊, 「東晉南北朝時代中國與海東諸國的關係」, 『考古 1989-11期』, P. 1031-1032

3) 朴鍾淑, 「百濟·百濟人·百濟文化」, (知文社 1988) PP.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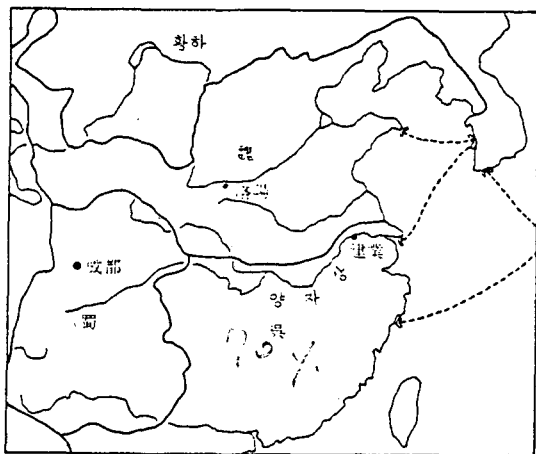


그림 2. 백제의 중국과 해상교류 루트

하여 대흑산도 근해로부터 바다를 건너 남조의 국도였던(동진, 송, 제, 양, 진) 建康(현 南京)이 자리잡은 江淮지방으로 가는 길인데 이 항로는 거리가 매우 길고 항해상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겠다.

한편 이러한 교류가 백제의造船기술을 삼국중에서도 가장 발달시킨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나아가 일본과의 활발한 교류로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헌적인 근거는 없지만 고고학적 자료에 의하면 이미 漢代의 유물들이 백제의 점령지 여러곳에서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 漢城시대부터 어떠한 형태이든 대륙과의 교류가 있었다고 본다. 또한 백제와 공식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던 南北朝時代의 문화는 400여년간 지속되었던 漢代의 문화가 그대로 이어진 까닭에 南北朝의 건축양식은 그 정형을 漢代의 건축양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後漢時代와 백제는 문헌에 나타나는 공식적인 교류의 흔적은 없지만 동시대에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後漢時代의 건축양식은 육조시대 건축을 이해하는 전제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3. 資料로 본 百濟와 中國의 交流

1) 文獻史料의 接近

사료를 중심으로 볼때 그 사료가 지닌 맹점들이 잘못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중 하나가 대륙과 한반도와의 끊임없는 교류가 이루어 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와같은 교류는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건 분명히 문화의 교류가 있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하나의 같은 사실에 대하여 간혹 두개의 사료가 비슷한 경우도 있고 또한 다른 경우도 있다. 이에대한 검증은 매우 애매하지만 역사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부정하기가 어려운 것들도 있다. 따라서 문헌고찰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문헌상에 나타난 백제와 중국과의 교류시기는 남북조시대의 동진부터이다.

三韓, 三國이 이미 晋代부터 朝貢, 請求, 封冊, 使節 등의 명목으로 중국과의 교역로가 텃고, 특히 山東일원을 중심으로 황해연안의 중원 지역은 일찌기 東夷文化圈이라는 전제와 더불어 요동과 한반도를 이은 소위 環黃海文化圈이라는 동일문화권의 교역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보고있다.⁴⁾

사료에 나타난 중국의 한반도에 관한 기록은 『史記』 卷115에 나오지만 百濟와의 공식적인 교류는 百濟의 한성시대 중기이후 부터 이다.

중국측 사료인 『南史』 「百濟條」에 의하면 “中大通6年⁵⁾과 大同7年⁶⁾에 연거푸 사신을 보내와 방물을 바치는 한편 涅槃經 등에 대한 義流와 毛詩博士 및 工匠, 畫師 등을 구하므로 모두 공급하여 주었다”⁷⁾라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때는 이미 百濟와 중국대륙 사이에 상당한 교류관계가

4) 權兌遠, 「百濟의 籠冠考」, 『尹武炳博士回甲記念論叢 1984』 P. 360

5) 梁의 武帝때 年號이며, 百濟 聖王12년(A. D. 534년)이다.

6) 梁의 武帝때 年號이며, 百濟 聖王19년(A. D. 541년)이다.

7) 「中大通六年 大同七年 累遣使獻方物 並請涅槃等經義 毛詩博士并 工匠畫師等 並給之……」

이루어 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는 梁의 「職貢圖」에 백제사신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림 3.) 특히 “工匠”을 보내 달라는 요구를 들어 주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중국의 기술은 百濟에 비해 발달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기술자 중에는 建築匠人도 포함되어 있으리라 추측된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측 기록인 「三國史記」 卷二六 百濟本紀 第四에서도 유사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림 3. 梁의 「職貢圖」에 그려진 백제사신(宋代摹本)

「南史」의 시대적 배경이 南朝의 南宋·齊·梁·陳에 대한 정사라는 점으로 볼때 그 이전부터 百濟와 대륙간에는 빈번하게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

“百濟”라는 기사가 최초로 중국측 자료에 나타난 것은 「三國志」 「魏書」卷一百 列傳八八 高句麗條⁸⁾인데 그 이후 「北史」, 「隋書」, 「通典」, 「晉書」, 「宋書」, 「南史」등 여러 문헌에 百濟에 관한 기사가 나오고 있다. 그중에는 사신을 파견하여 방물을 바쳤다는 내용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

다.⁹⁾

백제가 중국과 교류관계를 가지면서 초기와는 달리 후기가 되면 해로를 통하여 더욱 빈번한 교류가 이루어 지게 되는데 이러한 내용이 「北史」 「魏書」 百濟條와 「三國志」 「魏書列傳」 百濟條에 나타나 있다. 그것은 백제 毗有王 14년(440) 중국에 사신을 보내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다.¹⁰⁾

또하나의 내용은 延興2年¹¹⁾에 百濟王 餘慶이 처음으로 冠軍將軍 駙馬都尉 不斯侯와 長史餘禮 龍壤將軍 帶方太守 司馬張茂 등 사신을 보내어 표를 올려 말하는 내용인데, 육로로는 고구려가 막혀 갈 수가 없고 할 수 없이 바다를 통하여 사신을 보낸다는 내용이다.¹²⁾

이러한 바다를 통한 교류는 그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대륙과 교류에 있어서 육로로는 고구려의 점령지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두나라 사이에 외교관계가 좋은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외교관계가 좋지 않을때는 할 수 없이 해로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다른 내용을 보면 「陳을 평정한 해」¹³⁾에 어떤 戰船 한척이 표류하여 바다동쪽의 舩牟羅國에 닿았다. 그배가 돌아올적에 백제를 경유하니 (餘) 昌이 필수품을 매우 후하게 주어 보냈다. 아울러 사신을 보내어 표문을 올려 진을 평정한 것을 축

8) 「……涉羅爲百濟所并……」로서 百濟의 近肖古王 26年(A. D. 371)이다.

9) 「晉書」卷九 帝紀第九, 「宋書」卷九七 列傳第五七, 「南史」卷二 宋本紀 등에 「……遣使貢方物……」 「……遣使來貢方物……」 「……爲使特節……」 「……遣使朝貢……」 등의 기사가 보이고 우리측 자료인 「三國史記」에도 이와 유사한 기사가 보인다.

10) 「北史」 「列傳」 百濟條의 내용으로서 「지난 庚辰年 이후 서쪽바다 가운데서 시체 10여구를 발견하고 아울러 의복·기물·안장·굴레 등을 얻었는데 살펴보니 고(구)려의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뒤에 들으니 이는 바로 陛下의 사신이 우리나라로 오던중에 뱀처럼 흉악한 것들이 길을막고 바다에 침몰시킨 것이라 합니다. 이제 습득한 안장하나를 바쳐 보이겠습니다.」

11) 北魏 孝文帝때의 年號이며 百濟 蓋婁王 18年(A. D. 472) 임

12) 「魏書」 「列傳第八二」 百濟條

13) 南朝의 陳을 말하며 隋 文帝때인 開皇9年으로서 百濟 威德王 36年(A. D. 589) 임

하 하였다. 高祖는 이를 기뻐하며 詔書를 내려 “백제왕이 陳을 평정한 소식을 듣고 멀리서 표문을 보내 축하 하였으나 왕래가 지극히 어려워서 만약 풍랑을 만난다면 인명이 손상될 것이요, 백제왕의 진실한 심정은 이미 알고 있소 서로 거리는 멀다해도 우리는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 하는 것이나 같으니 어찌 반드시 사신을 자주 보내 서로 다 알아야 하겠소? 이제부터는 해마다 따로 朝貢할 것이 없소. 나도 사신을 보내지 않으리니 왕은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였다. 사자가 기뻐서 돌아갔다.¹⁴⁾

교류는 백제가 부여로 천도한 서기624년에 唐의 高祖에게 사신을 통하여 표문을 올리고 朝貢을 바친다. 이때 高祖는 정성을 가상히 여겨 다시 사신을 보내 백제왕을 책봉 하였다 한다. 이로부터 해마다 사신을 보내 朝貢을 하니 高祖는 수고로움을 위문하고 매우 후대하였다. 이어서 고(구)려가 길을막고 중국과의 래왕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호소하므로 조서를 내려 朱子翬를 보내어 화해시켰다. 또 신라와는 대대로 서로 원수가 되어 자주 서로 침공 하였다.¹⁵⁾

백제가 3국의 갈등속에서 결국 羅唐연합군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 중국대륙과 교류했던 나라는 魏를 비롯하여 晉(西晉·東晉), 宋, 北魏, 北齊, 北周 등 南北朝의 여러나라와 통일국가인 隋, 唐

등이다. 이 중 통일국가인 隋·唐이전 시대의 교류를 보면 주로 東晉, 宋, 齊, 梁 등 특히 강남 일대에 존재했던 남조의 여러나라들과 더욱 빈번하게 접촉했음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당시 혼란했던 북방제국 보다는 강남에 근거를 둔 東晉 및 南朝는 비교적 안정된 환경가운데 우수한 한족문화를 지니고 있는데다가 황해를 통한 교통의 편리한 점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백제는 東晉 및 南朝와 通交함으로써 당시 華南의 優雅한 선진문화를 받아 들이는 동시에 화북제국과 通交하던 고구려에 대하여도 국제적 세력균형을 取하려는 것이 그의 主要한 與件이었다 할 것이다.¹⁶⁾ 한편 백제초기에도 後漢과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관한 공식적인 기사는 보이지않고 다만 漢四郡을 통한 비공식적인, 또는 간접적인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

이와같이 백제와 중국 諸 王朝와의 교류는 近肖古王27년(A. D. 372), 東晉의 簡文帝 威安2년에 朝貢명목으로 비롯되어 泗泚로 천도하여 백제가 멸망한후 형식상의 식민통치기구가 당분간 唐으로 부터 인정된 唐高宗 말년인 永淳1년(A. D. 682)까지 계속 되었다.

三國史記 百濟紀와 中國 史書의 本紀, 列傳에 나타난 여러가지 명목의 중국과의 교류회수는 다음과 같다. (표 2.)

표 2. 백제의 대중국교류 대조표

南北朝別	交流王朝	交流期間	交流回數
南 朝	東 晉	近肖古王27년(372)-久爾辛王1년(420)	8
"	宋	久爾辛王 1년(420)-東城王 1년 (479)	19
"	齊	東城王 1년(479)-武寧王 2년 (502)	11
"	梁	武寧王 2년(502)-威德王 4년 (557)	11
"	陳	威德王 4년(557)-威德王36년 (589)	5
北 朝	北 魏	辰斯王 2년(386)-聖 王 12년 (534)	5(전쟁2포함)
"	北 齊	聖 王 28년(550)-威德王24년 (577)	4
"	北 周	威德王 3년(556)-威德王28년 (581)	2
統一王朝	隋	威德王28년(581)-武 王 19년 (618)	18
"	唐	武 王 19년(618)-(682)	46(전쟁5포함)

14) 『隋書』, 「東夷列傳」 百濟條

15) 『舊唐書』, 「東夷列傳」 百濟條

16) 文化財管理局, 「武寧王陵發掘調査報告書」, PP. 72 1974. 서울

위의 표에서 보듯이 백제는 북조에 비해 남조와의 교류회수가 더욱 많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교류로서 북조와는 9회인 반면 남조와는 44회나 된다.

흔히 삼국시대 고구려는 주로 북조와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백제는 남·북조 양측과 모두 교류가 있었다. 물론 당시의 지정학적 북조왕조와의 육송이 되고있는 고구려의 친북조교역과 상대적인 백제가 남북조와의 교역이 단연 우세하기는 하였으나 지리적편이와 남·북조 양단교역이 있었던 것으로 보며 북조와의 통교도 그들이 남진한 웅진·사비시대까지 간헐적이거나 지속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2) 考古資料의 接近

동아시아 세계의 격동기인 4세기에 접어들어 중국의 동방정책의 본영인 낙랑군과 대방군이 한반도에서 소멸 되었다. 그리고 북중국에서는 수로에 익숙치 못한 塞北의 기마유목민족이 들어서게 되었다. 이와 거의 비슷한 무렵인 4세기 중엽에는 伯濟國과 同系로서 기마전 위주의 정복력을 갖춘 百濟가 만주지역에서 남하하여 한반도에 등장하게 되었고, 이로써 한반도의 서남지역에 분포한 마한제국은 정치적으로 통합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서남해안 지역의 해상교통로와 상업로는 자연 백제가 계승, 장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백제는 종전 마한 제국과 북중국의 西晉과의 항해로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¹⁸⁾

고고학적으로 볼때 백제는 비교적 일찍부터 대륙과 문화적인 교류를 하게 된다. 그것은 백제시대에 발견된 각종 고고학적 출토유물에서도 중국의 것과 유사한 것들이 발견 되므로 알 수 있다.

중국의 전국시대 燕나라 화폐인 易刀錢은 평안도 지방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된 바 있지만, 전남 장진에서도 발견된바 있거니와 前漢과 後漢시대

에 만들어진 五銖錢이 제주도·거문도·경남 마산·의창 등지에서 발견되고, 王莽의 新나라때 통용된 적이 있는 大泉五十, 貨泉, 貨布 등이 전남 해남·제주도·경남 김해와 같은 한반도의 서남해안 지방에서 발견되었다. 아울러 이들 지역에서는 漢鏡도 확인되고 있는데, 경남 고성군 동외동·김해군 양동리, 의창군 다호리·제주도 山地港 유적에서 그것이 출토되고 있다.¹⁹⁾ 특히 제주도 山地港 공사중 발견된 五銖錢, 貨泉, 貨布, 大泉五十 등은 漢대와 新나라때 주조된 것으로 이 유적의 성립 下限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며²⁰⁾ 이는 後漢에 들어와 활발한 교류가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大泉五十은 居攝年間²¹⁾에 만들어져 五銖錢과 함께 통용되었던 것으로 년대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 유물과 교류의 관계를 시대적으로 추정케 해 준다.

이와같은 유물의 형식상의 년대문제를 놓고 볼때²²⁾ 한반도의 남해안 지역에서 출토된 漢代 화폐들은 대략 기원전 1세기에서 서기 1세기에 걸치는, 넓게잡아 약 2세기 간에 들어온 유물들로 생각된다. 또한 이 시기는 한반도 남부 지방에서 초기 철기문화가 본격적으로 정착되어 나가는 단계로서 漢代 화폐가 갖는 고고학적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²³⁾

고고학적 유물은 경우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백제 이전의 마한이거나 아니면 백제초기로 짐작되는 것도 있지만 하여간 일찍부터 백제는 중국과 여러가지 형식으로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본격적인 교류는 도읍을 熊津(公州)으로 천도한 이후부터 엮을 것으로 보인다.

19) 濟州大博物館, 龍潭洞 寶棺墓 發掘報告 1989.

20) 梅原末治·藤田亮策, 朝鮮古文化綜鑑(I)(養德社 昭和21) PP. 57

21) A. D. 6-8년으로서 前漢의 마지막 年代이며 이후 王莽의 新이 開國되었다.

22) 당시의 화폐는 같은 이름이라 할지라도 모양과 형식에 따라 주조년대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

23) 池健吉, 「南海岸 地方 漢代 貨幣」, 『昌山 金正基博士 華甲記念 論叢』, 1990. 3. PP. 534

17) 權兌遠, 「百濟의 南遷과 中國文化의 影響」, 『百濟研究 第21集』, (충남대백제연구소) PP. 192

18) 李道學, 「百濟의 交易網과 그 體系의 變遷」, 『韓國學報 第63輯』(1991년 여름, 一志社 서울), PP. 72



그림 4. 무령왕릉 출토 왕비 金製冠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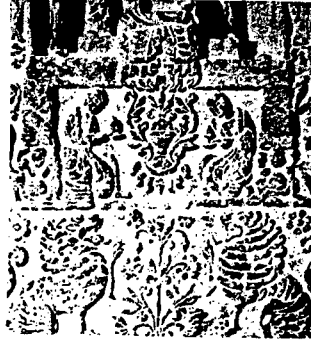


그림 5. 미국 캔사스 미술관 소장 西魏時代의 石碑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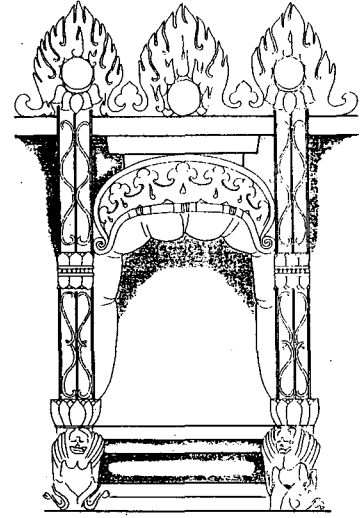


그림 6. 중국 北齊時代 響堂山石窟 北洞周壁 감실

한편 웅진시대의 武寧王陵에서는 梁武帝때 주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鐵製 五銖錢이 약 90여 개 출토 되었다. 이 왕릉에서 함께 출토된 왕비의 金製冠飾에 나타난 문양의 세부를 보면(그림 4.), 가운데의 伏蓮座 위에 花瓶을 놓고 그 주위에 忍冬文樣을 透刻한 조각인데 이것은 미국 캔사스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西魏時代의 石碑像 세부문양과 흡사하다.²⁴⁾ (그림 5.) 이와같은 伏蓮座위의 花瓶文樣은 6세기 중국의 불상대좌앞에 세겨놓은 조각에 주로 보이는데 이것은 부처에 대한 供化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문양은 또한 北齊의 文宣帝때 만든 響堂山 石窟寺院의 南洞좌우벽에 세겨진 寶壇香爐形과도 같으며, 전체적인 형태로 보면 이 석굴 北洞周壁의 佛龕상단에 표현된 火焰紋 장식과도 비슷하다.²⁵⁾ (그림 6.) 이로 미루어 백제와 중국과의 교류는 웅진시대 이후 불교의 전래와 함께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東晉때 백제에 처음 전래되었던 불교는²⁶⁾ 중국과 직접적인 교류를 갖는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후 중국대륙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북위시대의 불교건축이 백제와의 교류과정에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백제의 불교건축 유구에서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은 백제가 비록 한강유역 한산성에 도움하고 있으면서도 중국과 직접 교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 주며 그것은 이미 이 시기에는 백제의 관도가 한반도 서남지방 일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백제의 건축은 건국당초에는 고구려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이나 불교도입을 전후 하여서는 중국 南朝의 영향도 어느정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⁷⁾ 그러나 본격적인 남조계 건축으로 변모하는 것은 도움을 웅진으로 옮긴 475년 이후의 일일 것이다. 그것은 웅진이나 사비에 도움을 시기가 해상을 통하여 중국 남조와의 직접적 교류가 훨씬 쉬워졌을 것이고

24) 文化財管理局, 『武寧王陵發掘調査報告書』, 1974 서울 PP. 27

25) 東方文化院京都研究所, 『河北磁縣 河南武安 響堂山石窟』, 日本. 京都 昭和 12.

26) 枕流王 元年 서기384년 胡僧 摩羅難陀에 의해 처음 전래됨.

27) 金正基, 『韓國古代建築과 對外交渉』, 『韓國의 古代美術과 對外交渉』 報告論叢 81-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PP. 659

백제는 계속하여 東晉에 이어 梁등 남조와의 긴밀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로 짐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6세기 초부터는 거의 모든 건축이 南朝系로 바뀌어 졌으리라 생각된다.²⁸⁾

비록 건축유구는 아니지만 이와같은 교류관계를 잘 나타내 주는 것으로 백제의 近肖古王이 만들어 倭王에게 하사한 七支刀에는 “泰和四年”(369)이라는 銘文이 있는데 이 명문의 “泰和”라는 年號도 남조의 東晉때 사용된 年호이어서 삼국의 교류관계가 매우 밀접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여 고분에서 발견된 금속장식물에는 鏤空花紋이 세겨져 있는데 이 문양은 일본 法隆寺의 玉蟲廚子, 飛鳥時代 불상의 금속장식에도 똑같이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南北朝時代に 나타나는 특징적인 문양이다. 따라서 백제의 예술과 일본의 飛鳥時代 예술, 그리고 중국 南北朝時代의 예술이 서로 긴밀한 연계가 이루어 졌음을 증명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교류의 흔적은 이미 백제의 한성시대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85년 夢村土城에서 출토된 錢文灰釉陶器片은 3-4세기때의 특징이 나타나는 西晉時代의 것이며, 또한 1986년 여름 같은 몽촌토성에서 출토된 유물중에는 중국 東晉時代의 것으로 판명된 네귀달린 청자(四耳瓶)가 발견 되기도 하였다. 이 네귀달린 청자와 유사한 것이 무령왕릉에서도 출토 되었는데 외부형태는 몽촌토성의 것과 같지만 百濟産으로 추측되며, 그러나 같은 무령왕릉에서 나온 여섯귀달린 청자(六耳瓶)는 浙江지방에서 만든 中國産 임이 밝혀졌다. 전북 익산군 熊浦面 笠店里 야산에서도 南朝시대의 네귀달린 청자항아리가 발견 되었다. 이외에 공주에서 발견된 六朝式 연화문과 인동문벽돌(塼), 그리고 회도과편, 부여에서 발견된 치미과편 등을 볼때 중국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²⁹⁾

충남 공주에서 발견된 송산리 6호분이나 武寧王陵과 같은 塼築古墳을 볼때 六朝時代의 塼築古

墳과 거의 비슷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南京 幕府山에 있는 東晉시대의 분묘는 翁進시대의 분묘와 똑같이 凸모양 평면으로 된 單室塼築墓이다. 이 중 3호묘를 살펴보면 연도는 길이 1.9m, 폭 1.15m, 높이 2.12m이고 현실은 길이 4.6m, 폭 1.9m, 높이 2.54m로 천정을 아치로 구성 하였다. (그림 7.)

당시 분묘의 형태와 규모를 볼때 이 두 지역간의 활발한 교류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翁進시대의 분묘와 남조시대의 분묘를 비교해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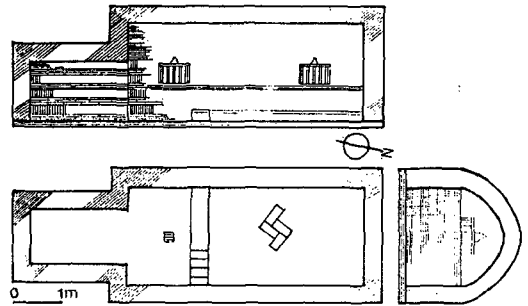


그림 7. 중국 南京 幕府山에 있는 東晉時代(317~419) 塼築墓

으로서 잘 알 수 있다. (표 3.)

중국 남조의 이러한 여러 분묘에서 벽돌쌓기 방법을 보면 무령왕릉이나 송산리 6호분과 같이 가로쌓기와 세로쌓기를 번갈아 하면서 벽면을 쌓아 올라가다가 상부에서 아치로 틀어지게 만들었다. 다른 것이라면 다만 가로쌓기의 단수가 1-2단 차이가 나는 정도이다. 한편 동서 양벽에 2개씩, 북벽에 1개 포함 5개의 凸형 벽감을 만들어 등잔을 두도록 한것과 감실 밑에 각각 벽돌을 모로세워 마치 창살문을 설치한 것과 같은 구성, 바닥塼을 깎 문양 등은 두 지역의 것이 너무나 똑같은 정도이다.³⁰⁾ 특히 南京 仙鶴門에 있는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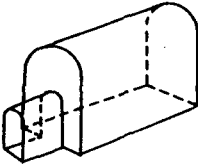
28) 金正基, 앞책 P. 665

29) 朱雲影, 「中國文化對日韓越的影響」, (黎明文化公司 中華民國74年, 臺北) PP. 487

30) 文化財管理局, 「武寧王陵發掘報告書」, (1974, 서울) 南京市博物館, 「南京幕府山東晉墓」, 「文物」1990-8期, PP. 41-42

표 3. 웅진시대 분묘와 남조시대분묘의 규모비교

단위 : m

명칭	구분	분묘구조	玄室			연도			출저
			길이	폭	높이	길이	폭	높이	
百濟	武寧王陵		4.2	2.72	2.93	2.9	1.04	1.45	무령왕릉보고서
	송산리6호분		3.96	2.36	3.3	1.0	1.0	1.65	"
南朝	南京幕府山3號墓		4.6	1.9	2.54	1.9	1.15	2.12	文物90-8期
	南京新塘南朝墓		5.75	2.23-2.42	3.4	2.48	1.31	2.35	文物89-4期
	南京小營村東晉墓		6.05	2.85	3.47	2.93	1.28	2.28	考古90-6期
	南京童家山南朝墓		4.4	1.7	2.3	1.23	1.0	1.75	考古85-1期
	福建閩侯南嶼南朝墓		4.45	1.71	3.2	1.15	0.8	1.75	考古80-1期
南京郊區三座東晉墓	4.07	1.73	1.88	0.96	0.82	1.08	考古83-4期		

조묘에 만들어진 보주형 감실과 감실밑의 살창형 벽돌쌓기는 무령왕릉의 그것과 완전히 같은모양을 하고 있다. (그림 8.)

남조시대의凸자형 평면으로 구성된 전축분은 이밖에 建康지역에 있었던 南京 童家山 南朝墓를 비롯하여 단양 호교선 당만대묘 등 수십기가 있고, 建康의 지역의 것으로 長沙 2號墓를 비롯하여 融安 2號墓, 新昌 19號墓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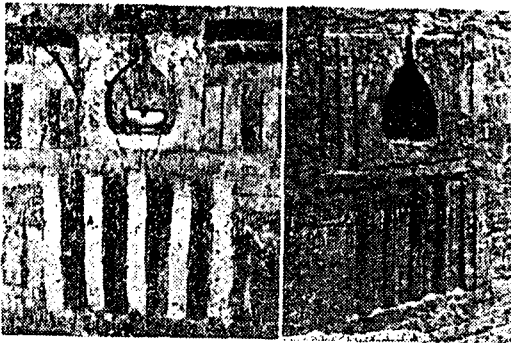


그림 8. 백제와 남조묘 내부의 감실과 령창 형태
(좌 : 무령왕릉, 우 : 仙鶴門墓)
(자료 : 考古 1984~6期)

이시대의 전축분에 쓰였던 벽돌 문양을 보면 백제의 전축분 문양과 거의 유사한 것들이 많이 쓰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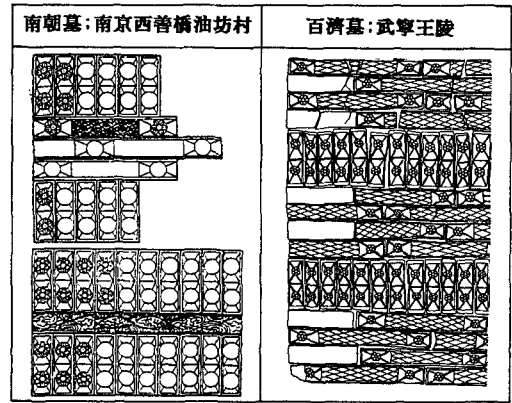


그림 9. 백제와 남조묘의 塼 문양과 쌓기
(자료 : 考古 1963~6期, 무령왕릉)

南京 西善橋 油坊村의 南朝墓에 쓰인 蓮花文塼과 蓮花斜格文塼 그리고 廣東省 新興縣의 南朝墓³¹⁾에 쓰인 五銖錢文塼, 江西省 清江縣의 南朝墓³²⁾의 五銖錢菱格文塼 등은 웅진시대의 무령왕릉, 송산리 6호분에 쓰인 문양전과 거의 유사한 모습을 하고있다. 보기에 따라서는 같은 기술자가 제

31) 古運泉, 「廣東新興縣南朝墓」, 『文物 1990-8期』(文物出版社)
32) 江西省博物館考古隊, 「江西清江南朝墓」, 『考古 1962-4期』(科學出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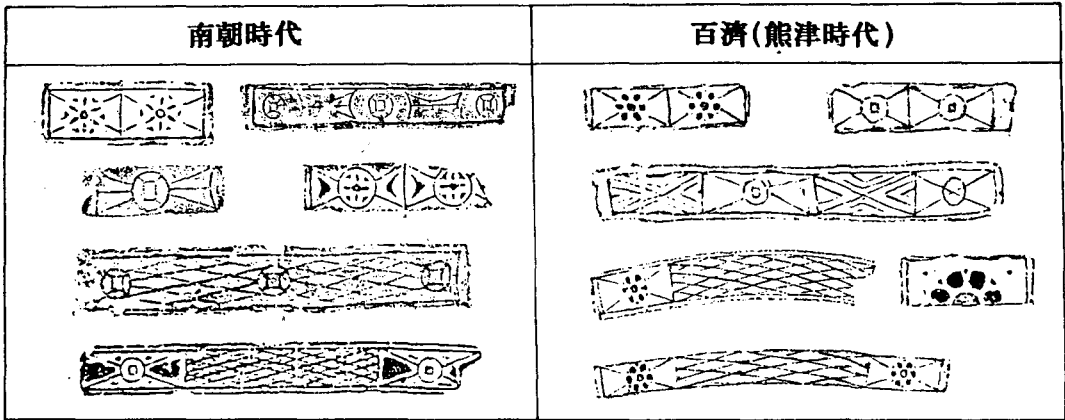


그림 10. 남조와 백제의 塼 문양 비교

작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이다. (그림 10.) 웅진시대의 벽돌중에는 송산리의 塼築古墳에서 草書로 쓴 「梁官品 爲師矣」라는 명문이 새겨진 塼이 발견되었는데 양과의 기술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밝혀주는 것이다. 이것은 문헌자료에서도 밝힌바와 같이³³⁾ 문헌에 나타난 교류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된다. (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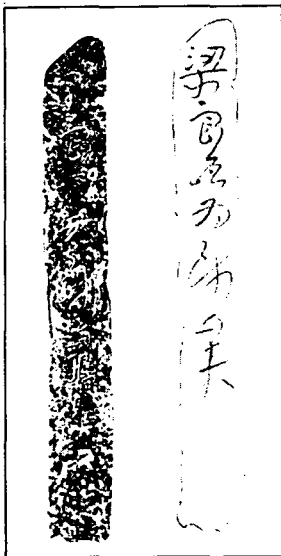


그림 11. 공주 출토 “梁官品爲師矣” 銘文 塼

이러한 역사적 상황으로 보아 백제의 제 문화 양상은 초기의 것은 고구려로부터 받은 북방적인 요소가 강했으나 웅진시대를 비롯한 중기이후 부터는 북방적인 요소 보다는 海路를 통한 중국의 남북조문화와 이어지는 隋·唐의 중원문화가 크게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4. 結 論

백제의 대외교섭은 당시로서는 생각했던 것 보다 매우 활발하였다. 그것은 문헌적 고찰과 고고학적 고찰 결과에서는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건축양식을 구명하기 위해 그 어느지역의 자료도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교류관계가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헌에 의하면 양 지역간의 정치적인 교류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교류도 매우 활발하였는데 특히 기술자교류가 명확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기술자 중에는 건축기술자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백제의 塼築墳墓와 당시 남조시대의 塼築墳墓 형태는 두 지역이 하나의 행정구역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비슷하고, 여기에 쓰인 각종 벽돌문양도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견문정도의 교류관계가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南朝시대 宋, 齊, 梁, 陳의 도움이 건강 (현재의 남경) 이고 이 지역의 분묘가 특히 웅진시

33) 「南史」 「百濟條」, 脚註 7) 참조

대의 분묘와 형태, 구조, 축조기술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은 이를 반증해 주는 것이다. 이는 문헌에 나타난 교류회수로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벽돌에 刻字된 “梁官品”이라는 銘文을 볼 때 이는 남조와 기술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축의 營造行爲는 피상적 견문이나 단기적 구

전만으로는 절대 이루어 질수 없는 특성을 생각할 때 궁궐이나 사찰과 같은 권위건축들은 남조와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된다. 말하자면 건축기술자의 직접적인 교류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건축양식의 구체적 사료에 대해서는 본 제목의 논고(2)편에서 상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참고문헌

- 「三國志」, 「魏書」卷一百 列傳八八 高句麗條
 「魏書」, 「列傳第八二」 百濟條
 「北史」, 「列傳」 百濟條
 「晉書」 卷九 帝紀第九
 「宋書」 卷九七 列傳第五七
 「南史」 卷二 宋本紀

- 江西省博物館考古隊, 江西清江南朝墓 「考古 1962-4期」 科學出版社
 古運泉, 廣東新興縣南朝墓 「文物 1990-8期」 文物出版社
 權兌遠, 百濟의 籠冠考 「尹武炳博士回甲記念論叢」 1984. 大田
 權兌遠, 百濟의 南遷과 中國文化의 影響 「百濟研究 第21集」 1990 충남대백제연구소
 金正基, 韓國古代建築과 對外交涉 「韓國의 古代美術과 對外交涉」 報告論叢 81-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南京市博物館, 南京幕府山東晉墓 「文物 1990-8期」
 東方文化院京都研究所, 河北磁縣 河南武安 響堂山石窟 日本. 京都 昭和 12.
 梅原末治·藤田亮策, 朝鮮古文化綜鑑(I) 養德社 昭和21
 文化財管理局, 武寧王陵 1974. 서울
 巴鍾淑, 「百濟·百濟人·百濟文化」, 知文社, 1988. 서울
 梁起錫, 「百濟의 海外進出」, 「季刊京郷 87여름호」, 京郷新聞社, 1987. 서울
 王仲殊, 「東晉南北朝時代中國與海東諸國的關係」, 「考古 1989-11期」,
 李道學, 「百濟의 交易網과 그 體系의 變遷」, 「韓國學報 第63輯」 1991년 여름, 一志社, 서울
 濟州大博嶺館, 龍潭洞 饗棺墓 發掘報告 1989.
 朱雲影, 中國文化對日韓越的影響, 黎明文化公司, 中華民國74年. 臺北
 池健吉, 「南海岸 地方 漢代 貨幣」, 「昌山 金正基博士 華甲記念 論叢」, 1990. 3 서울
 崔夢龍, 「上古代의 西海 交涉史 研究」, 「國史館論叢 제3집」, 1989. 서울

A Study on the History of Architectural Relationship in Ancient China and Korea (I)

— On the BAEGJE Period —

Lee, Wang Kee
(Mokwon University, Professor)

ABSTRACT

This study has to do with the architectural exchanges between the ancient Korea and China.

There are two parts in this paper.

The first part is concerned with bibliographical and archeological studies between two regions.

The latter part is to compare and study the architectural style of china with the architectural style of BAEGJE in those days.

At any rate, this paper is related to the first part of them.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this paper is more clearly to inquiry the BAEGJE Architecture.

BAEGJE Architecture is the most insufficient in researches of the era of Three Kingdoms' architecture of Korea until now.

Because the architectural Materials is also the most insufficient condition in Three Kindoms, in order to inquiry the architectural style of BAEGJE clearly, we will be able to get the clue as inquiring the relations of the chinese which they exchanged most frequently.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is appraoc~ed in two methods of the study.

One is the biblilographical research and the other is the archeological research.

The writer could find that there were many exchange relations in the bibliographocal and archeological fied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writer could confirm that there were nearly coexisting similiar styles of the Architecture.